

“내년 겨울 FA시장 흔들 수도” MLB닷컴, 이정후 조명

이정후, 해외 진출 도전 선언... 현지 매체도 관심

게레로 주니어에 빚대며 “이정후를 사랑하게 될 것”

“이 KBO스타가 내년 겨울 FA 시장을 뒤 흔들 수 있다.”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내년 겨울 빅리그로 건너갈 수 있는 이정후를 조명했다.

이정후는 전날(19일) 키움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2023시즌 뒤 해외 진출 도전의 뜻을 밝혔다.

2017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이정후는 2023시즌을 마지막 7년을 채워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키움은 이정후의 포스팅을 허가할 전망이다.

이정후의 해외 도전 소식은 곧바로 메이저

리그로 전해졌다.

MLB닷컴은 “내년 겨울 시장에는 매니 마차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슈퍼스타 이정후도 나올 수 있다”며 “이정후는 내년 시즌이 끝난 뒤 메이저리그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 이종범인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로 불린다”며 “2022시즌 타율 0.349, 출루율 0.421, 장타율 0.575, 23홈런 113타점을 기록,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정후의 타격 능력은 더 자세히 짚었다.

매체는 “이정후는 올해 627타석에서 66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삼진은 32개만 당했다. 또한 통산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역대

KBO리그 타자 중 최고 타율(0.342)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확도 높은 타격을 주목했다.

이어 “힘, 콘택트 능력, 스트라이크존 대응 능력을 갖춘 타자로 KBO리그 출신 타자들이 빅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달리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후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빚대기도 했다. “만약 어느 곳에 던져진 공이든 쳐낼 수 있는 게레로 주니어의 능력을 좋아한다면 이정후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이정후의 실력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MLB닷컴은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섰던 이정후는 내년 봄 한국 대표팀으로 WBC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은 B그룹에 속해 도쿄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지만 준결승에 진출하면 미국 마이애미에서 경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KBO sensation may be wind beneath one team's wings

There's a lot to like about Korean speedster Jung-hoo Lee -- not the least of which is his nickname, "Grandson of the Wind." Best of all, the KBO MVP intends to play in MLB in 2024.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이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의 해외 진출 도전 소식을 전했다. (사진=MLB닷컴 캡처)

월드컵 결승전 메시 연장전 골 무효?...득점 취소 어려워

메시 연장 후반 3분 2-2 상황서 극적 득점 골 넣을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 경기장 난입 주심이 난입 봤다면 경기 중단 조치 가능 플레이에 방해 안 됐다면 골 취소 어려워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 당시 리오넬 메시가 넣은 연장전 골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규칙 위반은 맞지만 이제 와서 득점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겼다.

논란이 된 장면은 아르헨티나가 넣은 3번째 골이다.

2-2로 맞선 연장 후반 3분, 아르헨티나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때린 슈트를 프랑스 골키퍼 위고 로리스가 막았다. 문전으로 달려들던 메시는 이 공을 오른쪽으로 찼고 공은 골라인을 넘어가 득점으로 인정됐다.

문제는 이 골이 들어갈 때 아르헨티나 벤치에 있던 선수들 중 일부가 그라운드에서 난입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득점이 인정된 후 그라운



메시가 결승전 연장전 골을 넣는 장면.

드 안으로 뛰어 들어와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프랑스 언론은 이 장면을 문제 삼았다. 프랑스 르퐁프는 19일 “메시의 연장전 득점은 규정대로 인정되지 않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축구 경기 규칙상 이제 와서 골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발표한 축구 경기 규칙에 따르면 경기장 밖에 있던 선수가 주심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심은 반드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 경기장에 직접적인 방해가 없었음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됐을 때 공이 있었던 지점에서 간접 프리

뉴시스

FIFA, 월드컵 본선 32개국 최종순위 발표...한국 16위

아르헨티나·프랑스, 1·2위...8강 진출 실패 8개국 중 일, 가장 높은 9위 3연패 카타르, 최하 32위...獨, 조별리그 탈락 16개국 중 최고 17위

국제축구연맹(FIFA)이 19일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후 본선에 오른 32개국의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1~4위는 우승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3~4위전에서 맞붙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차

지했다. 8강전에서 이들 4강 국가에 패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이 5~8위에 순위를 올렸다.

예선 조별 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올랐지만 16강 토너먼트 1차전에서 패해, 탈락한 16개국들은 각각 9~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

가들 중에서는 크로아티아와 1대 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대 3으로 패한 일본이 9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는데, 브라질에 1대 4로 대패한 한국은 16위로 본선 진출 16개국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다.

이들 8개국 순위는 일본, 세네갈, 호주, 스위스, 스페인, 미국, 폴란드, 한국 순이었다.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 16개국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17위에 올랐고, 3연패로 탈락한 카타르는 가장 낮은 32위였다.

뉴시스

프로축구 전복, 미드필더 김건웅 영입으로 첫 전력 보강

올해 K리그1(1부)에서 울산 현대에 우승을 넘겨준 전북 현대가 새 시즌을 앞두고 첫 전력 보강에 나섰다.

전북 구단은 20일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 모두 소화 가능한 미드필더 김건웅(25)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2016년 울산현대교를 졸업하고 울산에 입단한 김건웅은 지난 7시즌 동안 울산, 전남, 수원 FC에서 뛰었다. K리그 통산 145경기에 출전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원이다.

185cm로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보유한 김건웅은 안정감 있는 플레이와 뛰어난 볼 배급



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건웅은 “전북은 언제나 강했던 팀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강한 팀에 어울리는 선수가 돼 팀이 목표로 하는 트레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2023 프로야구 4월1일 개막...2연전 폐지·AG 중단無

2023시즌 KBO리그가 4월1일 개막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2023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KBO리그는 4월1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소화한다.

2연전이 폐지되면서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됐다. 이 경기들은 9월 10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 및 개막전 대신 5경기가 포함된 50경기(팀당 10경기)는 우선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들과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구단간 홈-원정 경기 편성도 기존 홈, 원정 각각 8경기씩에서 홈 9경기-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됐다.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된다. 2023년에는 SSG 랜더스·KT 위즈·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한화 이글스, 2024년에는 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가 홈 73경기를 운영한다.

2023 KBO 올스타전은 7월15일 개최된다. 7월14일부터 20일까지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으로 쉬어간다.

9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예도 KBO 정규시즌은 중단되지 않는다.

뉴시스



KB국민은행 박지수 우리은행 김단비

돌아온 ‘국보센터’ 박지수, 김단비 합류 우리은행 대결

여자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청주 KB국민은행이 ‘국보센터’ 박지수의 복귀로 모든 퍼즐을 맞췄다.

KB국민은행은 19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인천 신한은행과 경기에서 62-55로 승리했다. 이번 시즌 15경기 만에 처음으로 연승을 거뒀다. 4승(11패)째를 기록한 5위 KB국민은행은 4위 신한은행(7승8패)과 승차를 3경기로 좁혔다.

박지수 효과는 특히 두드러졌다. 박지수는 지난 8월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아 잠시 코트를 떠났다. 농구월드컵에 불참했고, 10월 정규리그 개막도 함께 하지 못했다.

17일 부천 하나원큐전에서 복귀전을 치른 박지수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가공할 높이의 존재감을 여전했다. 리바운드 우위와 수비에서 상대에게 상당한 버거움을 안겼다. 2경기 만인 신한은행전에서 19점을 올리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박지수가 오면서 강이슬, 김민정, 허예은 등 외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효율도 높아졌다.

다음 상대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대결한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11연승 중으로 14승(1패)을 기록 중이다. 2위 용인 삼성생명(9승5패)과 승차가 4경기 반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다.

자유계약(F)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배태량 김단비를 중심으로 박혜진, 박지현, 김정은, 최이샘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라인업에서 빈틈을 찾기 어렵다.

우리은행은 평균 득점(73.8점), 리바운드(43.5개), 어시스트(20.6개), 볼록아웃(3.5개), 최소 실점(56.8점) 등 거의 모든 팀 기록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시즌 우리은행과 세 차례 만나 모두 10점차 이상으로 완패했다. 특히 지난 12월 세 번째 대결에선 39점 빈공에 그쳐 39-51로 완패했다. 불명예스러운 구단 자체 역대 한 경기 최소 득점이었다.

하지만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박지수가 합류한 만큼 앞선 대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박지수의 체중이 빠져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렵지만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갖는 강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선 김단비, 박지현, 김정은 등이 번갈아가며 박지수를 막아야 한다.